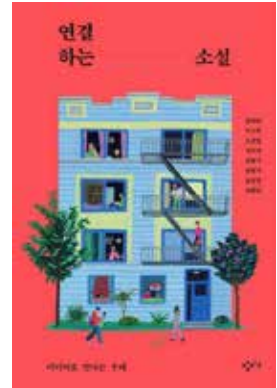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 감정: 미디어 테마소설 『연결하는 소설』 작가대담



진행 : 배우리(금명여자고등학교 사서 교사)
대담 : 윤제영(경남여자중학교 사서 교사)
김보경(사직고등학교 사서 교사)
서이제(소설가)
임현석(소설가, 기자)
정리 : 하정빈(시청자미디어재단 책임)

미디어 테마 소설 『연결하는 소설』 이야기

배우리 저는 미디어 테마 소설 『연결하는 소설』의 역은이이자 고등학교 사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설 작가님들과 역은이분들을 모시고 이 책과 관련해 ‘미디어리터러시와 감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김보경 테마 소설 『연결하는 소설』을 읽으면서 고민한 부분은 주로 미디어라는 도구를 통해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연결, 소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중고 거래 앱 ‘뉴미디어’는 나와 타인이 만나는 통로로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미디어 활용 행태가 잘 반영되어 있어 이야깃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윤제영 『연결하는 소설』 중 서이제 작가님의 작품 「위시 리스트 ♥」에서 주인공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은 행위를 계속합니다. ‘위시 리스트’는 원하는 물건이나 상품의 목록이지만 넓게 보면, 개인 취향, 혹은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취향이나 자기 서사를 찾을 때 남들과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마주치는 소외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나이에, 정해진 루트를 따라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스스로 짜놓은 것에 매몰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자기 것을 찾아나가자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배우리 그렇다면 작가님들은 미디어 테마로 작품을 묶을 때 혹시 독자들이 미디어라는 틀에서 읽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으셨나요?

임현석 저는 중고 거래 앱을 통해 거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소설로 다루었는데요. 이런 앱을 통한 소통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새로운 키워드가 됩니다. 테마 소설집이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루고 있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오히려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서이제 두 번째 소설집에 속하는 이야기를 쓸 때 애초에 디지털 매체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소설을 미디어 테마 소설로 엮어보자는 연락이 왔어요. 청소년 문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테마 소설집이 청소년 문학 부문에서 다루어진다고 생각하니 기뻐요. 청소년 문학이란 장르에서 제 소설이 어떻게 읽힐지 궁금해 지더군요. 그동안 당연한 듯이 성인 독자들 위주로 작업을 해온 것에 반성이 들었습니다. 이 대답을 준비하면서 제가 겪고 있는 이 매체 감각과 청소년들의 매체 감각이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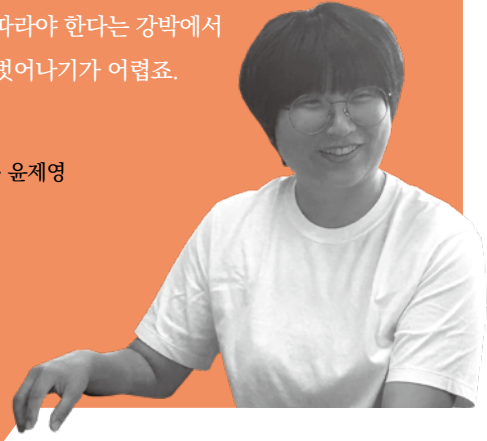
배우리 이 테마 소설 시리즈는 고등학생부터 20~30대 청년층까지 두루 읽을 수 있다는 데 출간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디어'를 작품 소재로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이제 첫 번째 소설집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는 감각을 담아내는 작업이었어요.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매체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아예 디지털에만 집중해 작업을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디어 이야기를 언급하면 디지털 기술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마련이죠. 지금은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시대성을 다루기 어려워요. 일단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혹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소설을 쓸 때 여러 가지 기준과 관점이 있겠지만 저는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에 두고 작업을 했었기에 자연스럽게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현석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의 디지털 변화를 체감하고는 합니다.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던 여러 영역이 디지털로 옮겨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은 원래 아파트 전단지나 책자를 디지털화한 것이고 '카카오 택시'는 기존의 콜택시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변화한 사례로 볼 수 있지요. 중고 거래 앱 역시 과거의 벼룩시장 방식이 디지털화된 것이죠. 디지털로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 변화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한 관계 맺기 방식까지도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구해야 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다루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중고 거래의 경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고 거래 빌런' 같은 단편적인 사건이나 논쟁적인 이슈만 소비되고 있는 듯해요. 관계의 변화에 대해 성찰하기보다는 화제성을 쫓는 거죠. 플랫폼에 따라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는 미묘한 감정의 문제는 문학이 잘 다룰 수 있어요. 이러한 미디어 변화에 대한 민감한 인식을 소설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위시 리스트'는 원하는 상품의 목록이지만 넓게 보면, 개인 취향, 혹은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사람들은 취향이나 자기 서사를 찾을 때 남들과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마주치는 소외감을 두려워합니다. 정해진 나이에, 정해진 루트를 따라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 윤제영



미디어는 감정 소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배우리 사람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과 미디어를 통해 표현된 감정이 다를 수도 있을까요? 그 감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디어는 감정을 끌어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임현석 변화하는 새로운 미디어들은 소통과 피드백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카카오 택시'는 별점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배달의 민족'은 리뷰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죠. 이러한 형태는 소비 중심적이지만 별점과 리뷰도 우리 사회의 관계 맺기의 한 방식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중고 거래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디어들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소통을 유도하기 때문에 매우 표면적이고 뚜렷한 목적과 관련된 대화만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현대인들은 이러한 목적 지향적 소통에 익숙해 있죠. 이런 방식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중고 거래 앱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오고가는 감정의 흐름을 엿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미묘한 관계와 감정의 흐름 속에서 캐릭터 변화를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미디어 자체가 이러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끌어내지는 않아요. 미디어는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을 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소통은 미디어가 목표한 바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미디어 밖에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미디어가 갖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어요.

서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처럼 웹도 하나의 공간이고 디지털로 된 거대한 무대라고 생각해요. 인간에게는 '연극적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교실에 들어가면 선생님 역할을 수행하고 편의점에 가면 손님 역할을 수행하듯이 우리는 현실에서 일정 부분 어떤 역할을 맡아 연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 안에서도 각자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끊임없이 연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위시 리스트 ♥」의 문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기록을 남기려고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죠. 사람들한테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점점 문화 향유자로서 혹은 힙스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게시물을 올립니다. 자기한테 금전적으로 치환되는 부분이 없어도 그 역할을 갖기 위해 일을 계속하는 거죠.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을 보면 자기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욕망한다는 건 다른 말로 그 사람이 무엇이 결핍되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보여주죠. 저는 거대한 무대 같은 그것을 소셜 안에서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배우리 작가님들은 작품을 쓸 때 독자들이 이런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하고, 혹시 의도하시는 게 있을까요?

서이제 어떤 감정든 다 좋고 자유롭게 읽어주시길 바라요. 다만 작품을 쓸 때 약간 염두에 두었던 부분은 있어요. ‘라이크 이코노미(Like Economy)’라고 ‘좋아요’를 눌러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장바구니에 담긴 위시 리스트가 모두 빅데이터에 기록되고 기업들이 나의 취향을 끊임없이 추적해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기업에서 별도의 노동력과 비용을 들여 조사,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결국, 그 노동을 내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쇼핑 욕망에 충실해서 장바구니에 넣고 있지만 실은 누군가 그걸 지켜보고 있고 데이터로 만들어 상업적인 부분으로 기여하고 있다면? 그 과정을 내가 모를 뿐이지 일종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지요. 가령 문호가 쓰는 블로그 포스팅도 홍보 효과가 있어요. 일종의 마케팅이에요. 오직 힙스터 연기를 위해 내내 무임금으로 그 작업을 하죠. 자발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어느새 그 행위의 실체가 되어버리죠. 제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미술관에 가서 예술을 향유하는 행위가 노동과는 다른 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마저 별점을 매기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노동 행위)을 한다는 거죠.

임현석 사실 미디어를 통해 보이는 이미지는 프레임화되어 있잖아요. 텍스트든 영상이든 제작자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편집해서 보여주지요. 그러다 보니 종종 극단적이거나 자극적인 모습을 강조하게 되고 수용자는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프레임을 벗어나 실제 우리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존재해요.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이미지와 이면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면의 삶을 상상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글을 써나갔습니다. 이면을 상상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너무 즉각적이고 소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름을 이해하는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단순히 미디어가 보여주는 방식대로 소비하거나

소비 중심적이지만 별점과 리뷰도 우리 사회의 관계 맺기 방식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이런 미디어들은 매우 표면적이고 뚜렷한 목적성 대화만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현대인들은 이러한 목적 지향적 소통에 익숙해 있죠.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고 거래 앱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오고가는 감정의 흐름을 엿볼 수 있어요.

- 임현석



생산자가 설정한 방식대로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이죠.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한 다른 작가도 많습니다. 서이제 작가님 작품에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과 그 이면의 차이가 존재하듯이 다른 작가들 역시 이면에 있는 감정과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면을 상상하는 이런 능력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소설에서도 50대 남성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택에는 제가 사회부 기자로 일한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50~60대 남성 페르소나를 인터뷰했는데 이분들은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삶의 모습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 삶이 정말 좋은 걸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그들이 내세우는 겉모습과 이면을 비교하면, ‘저 사람, 참 짠하다.’ 싶은 감정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 이면을 상상하고 공감하는 영역을 제 소설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미디어 생활 : 익명성과 대면 소통

배우리 이번에는 작가님들의 미디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감정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편인지, 미디어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대면으로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이제 저는 소셜 미디어에 제 생각이나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는 편이에요. 상대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불특정 다수에게 제 감정이나 생각을 노출하는 게 망설여집니다.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저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갖는 생각에 공포가 좀 있어요. 예전에 친구들과 소통할 때는 내 상태를 알려주고 싶어서 내 생각이나 감정 등을 소셜 미디어에 자주 올렸었죠. 어느 순간,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공적인 내용 외에는 잘 올리지 않게 되었어요. 대면 소통이 좋은 지점은 바로 인간이란 동물에게 있는 ‘얼굴’이지요. 그러나 언어나 사진 영상으로는 미세한 뉘앙스 변화 같은 것들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저는 오감을 다 써야지만 겨우 소통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대면 소통을 더 좋아해요.

임현석 소셜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서도 감정이 드러나는 양상이 다르죠. 예를 들어 싸이월드 시절에는 주로 대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즉 배경과 맥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통했어요. 하지만 현재의 소셜 미디어는 맥락과는 무관하게 자극적이고 빠르게 게시물을 올리도록 구성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빠른 호흡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에요. 대면 소통의 경우, 내가 한 말에 보이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배경이나 맥락이 충분히 이해되었는지를 상호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대화를 되돌릴 수 있어요. 이런 점이 대면 소통의 장점이지요. 커뮤니케이션은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정 욕구 같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욕구는 주로 대면 소통에서 충족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면 소통이야말로 상호 이해를 확인하고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이기에 그 중요성을 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서이제 익명성이라는 게 오히려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익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익명성 때문에 더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다기보다는 사람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모두 달라서 어려운 지점이 있네요.

임현석 감정을 이야기할 때 이 같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미디어에 따라서도 소통 방식이 달라지고요. 이런 배경과 소통 도구의 특성을 이해해야만 메시지의 의도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겠죠.

미디어를 통한 감정 소통

배우리 미디어 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디어를 통한 감정 소통의 장단점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미디어를 통한 감정 소통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김보경 장점으로는 일단 시간과 공간 제한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겠죠. 언제 어디서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접근성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림이나 사진, 영상 등 언어 외적인 요소로 소통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단점으로는, 미디어로 인해 대면 소통이 줄면서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소통에 머무르는 빈도가 더 잦아졌다는 거죠. 우리는 표정이나 목소리의 톤, 대화에서의 태도 등을 통해 훨씬 더 풍부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비언어적 요소를 배제할 때 쌍방 간의 오해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한 익명성이 감정 소통할 때 장점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단점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내면을 더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익명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 타인을 향한 혐오 발언, 무차별적인 감정 배설 등이 더 쉽게 드러나기도 하지요.

윤제영 중학교 1학년들과 수업 시간에 이 책을 같이 읽고 편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어요. 「무료나눔 대화법」에 등장하는 인물인 50대 아저씨의 행동에 대해 물어보면 아이들이 “완전 끈대 같아요.”라고 대답해요. 저도 그 인물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 선생님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어떨 거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모르는 사람과 미디어로 소통하는 것과,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함께 곁들여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미디어에서의 소

통은, 주로 단편적인 감정들 위주로 게시되고 수용자의 편견 등으로 인해 오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 의도와 다르게 게시물이 확대, 재생산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미디어를 활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미디어를 다루는 능력이 능수능란해요. 24시간 핸드폰을 들고 있는 데다가, 미디어리터러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인 감정과 정보만 주입되다 보면 정작 미디어리터러시를 기를 시간이 없어요. 미디어에서 단편적인 면만 보지 않도록 학생들의 꾸준한 주의를 필요합니다. 장점은 좋아하거나 비슷한 사람들에게서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소셜 미디어에서는 서로 취향이 맞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맞팔로우하면서 피드를 구성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익명성을 가지고 고민이나 취향을 올리면 성향이 비슷해서 같이 공감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죠. 이런 미디어의 특성을 잘 보완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이 이어져야겠습니다.

임현석 미디어의 단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에 있어 종합적인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인쇄 미디어가 사실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죠. 책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디어리터러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련 집어 들겠지요. 종합적인 관점들을 계속 탐구해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완성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을 텐데, 최근의 소비 방식은 인쇄 텍스트 미디어라고 하더라도 포털에 나와 있는 기사를 단편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죠. 유튜브의 쇼츠를 소비하는 현상을 보면 다른 외부적 관점들과의 소통이라는 것이 없고 자기가 소비하고 싶은 방식대로 소비하잖아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자꾸 다른 관점은 소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미디어가 재편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가 다른 관점과 소통할 것인가, 다른 관점을 상상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공감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게 결여되어 있으면 어떤 미디어 형식이든 맹점이 발생하게 마련이죠.

서이제 미디어가 우리 삶 안으로 깊이 파고들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과 소통하고 인쇄 미디어로 소통하는 것은 신문이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 혹은 편지가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만 가능했어요. 지금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 하고도 쉽게 소통할 수 있어, 시간을 축소하고 공간을 넓히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소통할 수 있지요. 장점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디어를 통한 소통에 비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과연 '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애초에 소통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예요. 소통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소통이라는 건 쌍방이어야 하잖아요. 현재 미디어 상황들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배설에 가깝거나 혹은 자기 표현을 하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보여주는 데 집중할 뿐, 정말 남의 말을 듣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또 듣는다고 해도 결국 자기가 선택적으로 듣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배우리 한편 미디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생산자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태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수용하는 사람은 각자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할까요?

김보경 앞에서 임현석 작가님이 미디어가 가진 속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피드를 올리는 생산자이자 피드를 보는 수용자이기도 하잖아요. 생산자이면서 수용자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미디어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지요. 생각이나 감정을 미디어라는 그릇에 담을 때 의도했던 의도되지 않았든 편집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생산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디어 생산자로서 책임감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수용자라면 생산자의 감정 표현이나 생각에 대한 배경이나 맥락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책이나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제작한 사람들이 어떠한 의도에서 왜 이런 콘텐츠를 생산했을까에 대한 맥락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종합적인 시각, 관점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윤제영 요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생산자인 동시에 수용자인 상황이라서 서로가 상대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서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공포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생산자로서 내가 무언가를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제약이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내가 생산하는 결과물이 외부에 비춰졌을 때의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해요. 또 이 책에서도 '바이센테니얼 비블리오플'의 황재윤이라는 사람도 행간을 읽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간이 저희가 계속 이야기 중인 맥락과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수용자나 생산자나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춘 상태에서 미디어 활동을 해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서이제 기본적으로 미디어의 속성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디어가 기능하는 방식,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이고, 미디어를 접할 때는 왜곡이나 변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테고요.

우리는 표정이나 목소리 톤, 대화 태도 등을 통해 훨씬 더 풍부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비언어적 요소를 배제할 때 쌍방 간의 오해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익명성은 감정 소통할 때 장점으로도 단점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김보경



감정과 미디어를 같이 생각할 때 우리의 감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러한 방식으로 인식한 데는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경험해 보지 않은 역사나 사건, 예를 들어 저는 지금도 9-11 테러의 잔상이 남아 있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의 잔상도 계속 머리에 남아 지하철을 탈 때 나 높은 건물들을 볼 때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실은 미디어를 통해 얻은 감정이지요. 만약 그 사건이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지 않았다면, 단지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은 것만으로는 그 이미지를 간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미지가 없으면 감정으로 각인되지 않았을 테니 말이지요. 요즘 전쟁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 또한 제 기억에 남아 먼 훗날 어떤 감정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미디어를 통해 습득되는 감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 가본 적도 없는 공간에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니 놀랍죠. 그것이 '나'라는 하나의 삶을 이루고 있고 우리 일상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져요.

임현석 덧붙여 말하면, 미디어의 속성 자체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 먼저 존재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미디어라는 수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미디어라는 수단이 감정 자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이버의 연예 관련 기사 댓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자신이 지지하는 팬덤을 지원하기 위해 댓글을 다는 경우도 존재하죠. 포털이라는 거대 기업은 댓글창을 건강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게 설계했다기보다 쇼핑 등 다른 서비스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미디어가 유도하는 이런 속성과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감정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디어의 속성을 고려할 때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방식이야말로 내 감정을 더 깊이 알고 다루는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서이제 그리고 실제로 언어화되지 않은 상태의 감정은 언어화를 거치면서 더 확실해지게 되지요. 가령 외롭다는 말을 해야, 혹은 그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외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모르듯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할을 미디어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리 지금 미디어와 감정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책에 같이 수록된 김보영 작가님의 「고요한 시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감정을 표현하는 데 특화된 '마인드넷'이라는 미디어가 있어요. 이 미디어를 이용하면 감정이 전부 드러나죠. 이런 미디어가 실제로 나온다면 어떨까요?

임현석 '마인드넷'은 감정과 장면을 바로 연결하는 SF적 장치인데, 저도 무척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언어의 한계와 한국 사회에서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 그리고 정치화된 구호로서의 언어를 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 작품은 마인드넷의 기술적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고 실험하는 의미로 봐야

겠죠. 그리고 이 설정은 사고 실험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직접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감정을 재 소비할 때 또 다른 이슈가 나올 수 있겠죠. 소셜에도 등장하지만 한 사람이 가진 진정성이 드러나는 모습을 바로 체감한다고 해도 그 진정성을 해석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술의 발전이 있다고 해서 현재 던지는 질문들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새로운 고민이 등장하겠지요. 언어화되지 않은 감정을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복잡한 생각 등은 여전히 우리 몫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저는 정치인의 말 이면에 있는 진정성을 보고 싶어 하는 우리의 바람이 반영된 이야기로도 읽혔습니다.

서이제 내 감정을 표현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자유 의지로 결정하죠. 그런데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기 표현의 주체성인 자유 의지를 훼손하는 거니까 말이죠. 한편으로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정치인이나 혹은 범죄 사건을 다룰 때 용이할 것 같습니다.

배우리 SF적인 미래 미디어와 관련해서 만약 작가적 상상력으로 미래 사회의 미디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이제 상상력의 관점보다는, 정규 교육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요? 미디어 윤리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필수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미디어리터러시를 계속 배워나가도록 말이죠. 이러한 교육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임현석 미래에는 가상의 존재나 공간을 통한 소통방식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메타(페이스북)는 VR 기기를 통해 AR과 VR을 활용한 소통방식을 진행 중이고 애플 역시 AR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인드넷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가상 소통방식이 확장되고 있죠. 다만 이런 시도들이 실제 인간관계에서 우연성을 통해 느끼는 감정이나 인정, 감정 교류 등은 가상 환경에서 대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챗지피티 같은 미디어가 계속 발전하면서 언어 장벽을 허

미디어를 통해 습득되는 감정은 상당히 많아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 가본 적도 없는 공간에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니 놀랍죠. 그것이 '나'라는 하나의 삶을 이루고 우리 일상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서이제



물고 더 많은 국경을 넘어 소통하는 방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오늘날의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령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나 댓글 등으로 지나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생겨나는 피로감이 있거든요.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쉽게 노출되는 문제죠. 이러한 문제들이 미래에는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소규모 모임을 통한 인간적인 상호 교류가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한강 작가가 “유튜브 다음은 종이책”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같은 통찰에 공감합니다. 책을 통해 얻는 1 대 1의 대면 교류 같은, 그러한 감각이 확장된 소규모 모임들이 미래에는 더 활발하지 않을까요?

인쇄 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

배우리 작가님들은 소설을 인쇄 미디어로 창작하는 역할을 하고 교사분들, 특히 저희 사서 교사는 인쇄 미디어를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알려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데, 이 인쇄 미디어와 다른 미디어는 감정 소통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이제 자율성과 능동성이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영화를 공부할 때 영상 미디어는 틀어 놓으면 영상이 움직이는 것이지, 제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동 감시하는 입장 같았어요. 물론 영화를 보고 끊임없이 어떤 분석을 하거나 사유를 한다면 능동적인 태도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능동적으로 가동시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텍스트는 제 의지가 없으면 단 한 문장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독서 경험에서 좋은 건 나의 능동성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나의 의욕 같은 것들을 독서 경험을 통해 익힐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임현석 어떤 미디어든 생산자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편집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좀 전에 ‘편집’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자기 표현의 주체성’에 대한 말씀도 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얼마큼 편집해서 보여줄 것이냐 하는 ‘정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영상 미디어는 편집의 정도가 더 높다고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볼 때 더 의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자로서 접근하자면, 영상 기자와 신문 기자, 방송 기자 간의 차이점도 명확합니다. 신문 기사는 하나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기사 한 줄이 이해될 수 있지만 영상은 직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 사건을 다룰 때 텍스트보다는 영상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전달되죠. 영상의 직접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력성이나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영상 미디어가 가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보경 책을 인쇄된 미디어로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책의 텍스트에는 여백이 있다는 점입니다. 책은 독자가 텍스트를 통해 스스로 사유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는 매체라고 생각해요. 영상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생산자의 의도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반면에 책은 내가 여백을 활용해 고민하지 않으면 독서 행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글자만 읽는다고 해서 독서 활동이 되지 않아요. 특히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행간’에서 작가들이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등장인물의 감정 등을 더 깊이 있게 발견해 내는 기쁨이 있지요. 얼마 전에 학교에서 제가 운영하는 독서 동아리에서 『파친코』를 읽었어요. 이미 유튜브로 드라마 <파친코> 쇼츠를 많이 본 어떤 학생이 시험 기간이라서 조금만 읽고 덮으려던 것을, 새벽 4시까지 읽고 평평 울었다고 하더군요. 쇼츠로 볼 때는 별로 감동을 느낄 수 없었는데, 책을 읽는 내내 자기 안에서 일어난 감정 변화에 생경하면서도 총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영화도 끊임없이 사유의 여백을 찾아나갈 수 있지만 영상을 소비하는 형태가 요즘에는 파편적이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몰입하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을 내밀하게 다가가는 경험을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윤제영 예전에 인쇄 매체는 공적이고 뉴미디어는 사적인 측면이 있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막상 매체를 접해보니 인쇄 매체가 훨씬 사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작가와 나 또는 등장인물과 내가 내밀한 소통을 통해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 감정은 내가 능동적으로 피워낸 감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소셜 미디어 등에서 파편적으로 오는 감정은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이미 발생되고 있는 감정에 내가 편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은 책보다는 소셜 미디어 같은 뉴미디어가 훨씬 익숙해서 지금 이 감정이 진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인지 구분하는 걸 무척 어려워해요.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고 물어보면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하거나 그냥 재미있다고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 변화나 작가, 등장인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워낙 즉각적이고 누군가 이미 만들어놓은 감정을 자기 감정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그냥 거기에 올라타거나 하는 경험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미디어를 활용할 때 증계자로서 학생에게 지금 그 느낌이 과연 자신의 감정인지, 학생 자신의 지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계속 대화와 수업을 통해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배우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것도, 작가님들이 작품을 쓰시는 것도 시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미디어를 통한 감정 소통에 있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작가와 교사는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경 서이제 작가님이 미래에는 미디어 교육이 공공 영역의 교육과정에도 들어가지 않겠

느냐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으로 보자면 국어과에 현재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있고요. 「2025 개정 교육과정」이 곧 시행 예정인데 국어과를 넘어, 거의 모든 교과에 미디어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 같은 사서 교사들은 아이들이 미디어를 활용하고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 4~5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정규 수업에서 『청소년과 미디어』를 교과서로 채택해 미디어를 주제로 다룬 적이 있어요. 특히 앎과 삶을 일치시키는 부분이 어려웠어요.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 지식적, 인지적 관점에서는 많이 다루었지만 실제로 내 미디어 삶에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할지는 고민이었죠. 학교에서 미디어리터러시를 배웠어도 아이가 미디어 생활을 잘 해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필터버블 같은 사회 현상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사례를 나누고, 알고리즘 추천을 끄는 운동도 해보았지만 교실 밖을 벗어난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미디어리터러시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최근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살펴보면,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기기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에 치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미디어리터러시는 기기 활용 능력보다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정서적, 도덕적 태도를 기르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리터러시는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 만나 토론 활동이나 협업 과제 등을 통해 서로 부딪히고 갈등을 조절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교사들이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격적 태도와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윤제영 제가 이어서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비대면 수업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런 시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화면 너머로 보던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실제로 만났을 때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고 대화를 하고 반응이 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막 중학생이 된 친구들은 제대로 된 관계 맺기가 잘 안되었어요. 자기는 상대방한테 가 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말인데 상대방이 상처받아 싸우는 일이 자주 발생했어요. 관계 맺기에 대한 연습이 안 되어 있어, 한 번 싸우면 바로 절교하거나 사이버불링으로 이어지는 등 현실의 사람을 대하는 방법, 혹은 능력이 상당히 취약해져 있었어요. 물론 아이들이 싸울 수도 있고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경험하고 부딪히고 화해도 해보고, 아니면 다른 친구와 새롭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연습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요즘 학교 사정이 그렇지 못하죠. 화해시키는 것도 어렵고, 부모와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마음을 잘 열지 않아요. 학교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보듬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교육 현장이 이 역할을 잘 해내기 힘



든 상황이 되었어요. 미디어 생활에도 이런 현상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 같아요. 미디어 소통도 결국 사람 간 소통을 바탕으로 하죠.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미디어를 어떻게 사람 간 소통의 매개체로 잘 활용할지를 교육을 통해 스스로 실습하고 계발해나가야 합니다.

서이제 저도 도덕과 윤리,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미디어 안에서도 그런 태도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미디어 콘텐츠는 타자를 상상하는 능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화면으로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체적인 하나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뿐더러 타자의 자율성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소통을 한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조종하는 식이에요. 이를테면 먹방을 하는 사람한테 “찹찹거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으로서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거라고 믿으며 그런 댓글을 쓴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영상도 비판적인 읽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상에도 분명히 행간이 존재할 수 있어요. 편집 기술이 영상에 몰입하게 만드는 식으로 발전해오다 보니 당연히 몰입하게 되고 편집점이 안 보이는 거죠. 특정 생각이나 관점을 주입시키기에 아주 용이한 기술이에요. 아이들이 직접 영상을 찍고 완성하고 만족감을 얻는 데 그치지 말고 자기가 쇼트를 구성하고 제작하는 방식에 따라 어떤 효과가 만들어지는지를 메타인지할 수 있도록 경험의 과정이 도입되어야 해요. 또한 콘텐츠나 영상 이미지를 볼 때도 변형이나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려면 직접 제작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죠. 책을 읽거나 인쇄 미디어를 직접 읽고 독해하는 능력과 함께 영상을 읽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임현석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내재되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발현하려면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고도화된 지능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요새는 공감을 피곤하게 생각

하는 경향도 보이는데 교류에서 즐거움만을 취하려는 거죠. 온라인 공간은 이러한 회피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미디어라는 공간은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어요. 그 표현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관계에서 오는 기쁨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만 이러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 다른 경로로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학은 그 수단 중 하나고요.

배우리 미디어를 통한 감정 소통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과 만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삶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은 참 어렵습니다. 미디어리터러시를 설명할 때 특히 정서적인 측면은 스스로 체득해야 가능하니 가장 어렵습니다. 문학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설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미디어지요.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이야기는 스스로 감화를 받아 앞으로의 삶을 태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변화의 시작이죠. 그런 면에서 문학 생산자이신 작가님들과 나눈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대담이 매우 뜻깊었습니다. (M)